전국한문실력경시(예선)대회를 겸한

제104회 대한민국한자급수자격검정시험문제

한자 사범급 가형 (정답기준안)

응시 부문	국가공인 사범급	수험 번호	
성명			

※공지사항※

1. 시험시간 : 14:00~15:30(90분)
2. 합격자발표 : 2024년 9월 23일(월)
3. 합격자확인 : 인터넷 www.hanja.ne.kr / ARS 060-700-2130
4. 자격증수령기간 : 2024년 9월 23일(월) ~ 9월 27일(금)
5. 자격증수령방법
   - ▸ 인터넷 접수자 - 등기우편 발송(접수자 부주의로 반송 시 유료발급)
   - ▸ 방문 접수자 - 수험표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수령

※주의사항※

1. 시험지와 답안지는 감독관에게 모두 제출한다.
2. 객관식 : 답안지의 객관식 답안란에 정확하게 표기한다.
3. 주관식 : 답안지의 주관식 답안란에 기재하되,
   - 한자의 표기는 정자로 또박또박 기재한다.
   - 한글의 표기는 국어어법(맞춤법)에 맞게 정확하게 기재한다.
4. 답안지 작성 시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위원의 조치에 따른다.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답처리 된다.

국가공인 한자급수 한자·한문전문지도사 자격검정관리운영기관

社團法人 大韓民國漢字敎育硏究會·大韓檢定會

http://www.hanja.ne.kr

※ 물음에 맞는 答의 번호를 답안지(앞면)의 해당 답란에 표시하시오.(1~50)

■ 다음 물음에 알맞은 答을 고르시오.(1~35)

1. 漢字의 訓音이 바른 것은? (①)
①雩-기우제 우 ②顫-떨릴 단 ③蹲-웅크릴 존 ④粗-거칠 저
[설명] ◎顫(떨릴 전), 蹲(웅크릴 준), 粗(거칠 조).

2. 漢字의 音이 다른 것은? (③)
①堞 ②牒 ③楪 ④疊
[설명] ◎堞(성가퀴 첩), 牒(서찰 첩), 疊(겹쳐질 첩)은 모두 음이 '첩'이다. ◎楪(평상 접).

3. 漢字의 訓이 다른 것은? (②)
①堈 ②墅 ③壟 ④塢
[설명] ◎堈(둑, 언덕 강), 壟(언덕 롱), 塢(둑, 언덕, 마을 오). 이상은 모두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墅(농막 서).

4. 漢字의 訓이 다른 것은? (④)
①杯 ②觴 ③盞 ④饗
[설명] ◎杯(잔 배), 觴(잔 상), 盞(잔 잔). ◎饗(잔치할 향).

5. 漢字의 訓音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②)
①逮-미칠 체 ②葩-꽃 비 ③癲-미칠 전 ④恁-생각할 임
[설명] ◎葩(꽃 파).

6. 訓音과 漢字의 연결이 바른 것은? (③)
①닻줄 현-舷 ②불끌 현-炫 ③가마솥 확-鑊 ④옷자락 의-裾
[설명] ◎舷(뱃전 현), 炫(빛날 현), 裾(옷자락 거).

7. "鴟·輜·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②)
①訓이 같다 ②音이 같다 ③部首가 같다 ④총획이 같다
[설명] ◎鴟(솔개 치): 鳥(새 조, 11획)부수의 5획, 총16획. ◎輜(짐수레 치): 車(수레 거, 7획)부수의 8획, 총15획. ◎錙(저울눈 치): 金(쇠 금, 8획)부수의 8획, 총16획.

8. 部首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③)
①攸 ②斂 ③孜 ④斃

[설명] ◎攸(바 유): 攵(攴)(칠 복)부수의 3획, 총7획. ◎斁(다스릴 선): 攵(攴)(칠 복)부수의 12획, 총16획. ◎斃(넘어질 폐): 攵(攴)(칠 복)부수의 14획, 총18획. 이상은 모두 攵(攴)(칠 복)이 부수이다. ◎孜(힘쓸 자): 子(아들 자)부수의 4획, 총7획.

9. 異音同義字의 연결이 바르지 <u>않은</u> 것은? (③)

①祉-禍 ②鏤-刻 ③侶-儒 ④鰊-鮫

[설명] ◎祉(복 지), 禍(복 우). ◎鏤(새길 루), 刻(새길 각). ◎鰊(아귀 강), 鮫(아귀 안). ◎侶(짝 려), 儒(선비 유).

10. "<u>辟</u>邪"에서 밑줄 친 '辟'의 訓音으로 바른 것은? (③)

①편벽될 벽 ②눈흘길 비 ③물리칠 벽 ④피할 피

[설명] ◎辟(피・벽・비・미): 피하다, 벗어나다, 회피하다, 숨다, 물러나다, 떠나다 (피)/ 물리치다, 부르다, 임금, 임, 법, 허물, 절름발이, 길쌈하다, 다스리다, 편벽되다, 밝히다, 죄주다, 열다 (벽)/ 비유하다, 눈흘기다, 비유컨대 (비)/ 그치다, 그만두다 (미). ◎辟邪(벽사):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침.

11. "誘㉠<u>掖</u>"와(과) "㉡<u>掖庭</u>"에서 밑줄 친 '掖'의 訓으로 바른 것은? (④)

①㉠: 겨드랑이, ㉡: 끼다 ②㉠: 도와주다, ㉡: 겨드랑이

③㉠: 궁중, ㉡: 겨드랑이 ④㉠: 도와주다, ㉡: 궁중

[설명] ◎掖(액): 겨드랑이, 곁채, 정전(正殿)에 딸린 궁, 후궁(後宮), 궁궐(宮闕) 안의 뜰, 끼다, 부축하다, 곁부축하다, 곁에서 도와주다, 원조(援助)하다, 부조(扶助)하다. ◎誘掖(유액): 남을 이끌어 도와 줌. ◎掖庭(액정): 대궐(大闕) 안. 궁중(宮中). 궐내(闕內).

12. 類似訓을 가진 漢字의 연결이 바르지 <u>않은</u> 것은? (②)

①誑・騙・譎 ②諴・詵・溱 ③薨・斃・殞 ④玩・珗・瑱

[설명] ◎諴(함): 화하다. 詵(선), 溱(진): 많다. ◎誑(광), 騙(편), 譎(휼): 속이다. ◎薨(훙), 斃(폐), 殞(운): 죽다. ◎玩(윤), 珗(전), 瑱(진): 귀막이옥.

13. 類似訓을 가진 漢字의 연결이 바른 것은? (①)

①玘・璲・瑀 ②塵・垓・堞 ③芼・苒・萇 ④芹・萋・荒

[설명] ◎玘(기)・璲(수)・瑀(우): 패옥. ◎塵(진): 티끌. 垓(해): 지경. 堞(첩): 성가퀴. ◎芼(모)・苒(염): 풀우거지다. 萇(이): 풀베다. ◎芹(근): 미나리. 萋(처): 풀무성하다. 荒(황): 거칠다.

14.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고 遊必有<u>方</u>이니라"에서 밑줄 친 '方'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④)

①모가 남 ②네모난 것 ③어떤 방법 ④정한 곳

[설명] ◎父母在 不遠遊 遊必有<u>方</u>(부모재 불원유 유필유방):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에는 멀리

떠나 있지 않고, 멀리 떠나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정한 곳이 있어야 한다.

15. "强□, □馬, 精□"에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漢字는? (④)
①刈 ②衒 ③哮 ④悍
[설명] ◎强悍(강한): 마음이나 성질이 굳세고 강함. ◎悍馬(한마): 성질이 사나운 말. ◎精悍(정한): 날쌔고 용감함.

16. 漢字로 假借한 국명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②)
①希臘-그리스 ②埃及-러시아 ③瑞典-스웨덴 ④比律賓-필리핀
[설명] ◎埃及(애급): 이집트. ◎俄羅斯(아라사): 러시아.

17. 우리나라 山의 漢字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④)
①지리산-智異山 ②설악산-雪嶽山 ③오대산-五臺山 ④한라산-漢羅山
[설명] ◎한라산(漢拏山):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에 있는 산. 참나무・산벚나무・단풍나무 따위의 식물이 자라며, 명승지로 삼성혈・백록담 따위가 있다. 국립 공원의 하나이다. 높이는 1,950미터.

18. 讀音과 어휘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③)
①치자-梔子 ②배포-焙脯 ③여확-茹藿 ④표양-飄颺
[설명] ◎梔子(치자): 치자나무의 열매.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 여러 가지 출혈증과 황달, 오줌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세에 쓴다. ◎焙脯(배포):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얄팍하고 넓게 저미어 간을 친 뒤에 화롯불 따위에 배롱(焙籠)을 씌우고 그 위에다 말린 포육. ◎飄颺(표양): 바람에 날림. ◎茹藿(여곽): 명아주 잎과 콩잎이라는 뜻으로, 아주 변변치 못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9. 어휘와 讀音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②)
①扼險-액험 ②揷觜-삽차 ③囹圄-영어 ④蚤蝨-조슬
[설명] ◎觜(취): 부리, 주둥이, 사물의 뾰족한 끝, 돌기(突起). ◎揷觜(삽취): 쓸데없는 말참견을 함.

20. 어휘의 짜임이 다른 것은? (③)
①加熱 ②彎弓 ③擘指 ④攬轡
[설명] ◎加熱(가열): 「1」 어떤 물질에 열을 가함. 「2」 어떤 사건에 열기를 더함. ◎彎弓(만궁): 화살을 쏘려고 활시위를 한껏 잡아당김. ◎攬轡(남비): 고삐를 잡음. 이상은 모두 '술목구조'이다. ◎擘指(벽지): 엄지손가락. 이는 '수식구조'이다.

21. 어휘의 짜임이 다른 것은? (④)
①嵐氣 ②丹脣 ③靑蛙 ④掉尾

[설명] ◎嵐氣(남기, 아지랑이 람・기운 기): 해 질 무렵 멀리 보이는 푸르스름하고 흐릿한 기운. ◎丹脣(단순, 붉을 단・입술 순): 붉고 고운 입술. 또는 연지를 바른 입술. ◎靑蛙(청와, 푸를 청・개구리 와): 청개구리. 이상은 모두 '수식관계'이다. ◎掉尾(도미, 흔들 도・꼬리 미): 「1」꼬리를 흔듦.「2」끝판에 더욱 활약함. 이는 '술목관계'이다.

22. "가르침을 청할 때 속수의 예를 표하는 것은 공자 이래의 기본 예법이다"에서 밑줄 친 '속수'을 漢字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①)

①束脩 ②粟輸 ③續羞 ④束手

[설명] ◎束脩(속수): '묶은 육포'라는 말로, 스승을 처음 만나 가르침을 청할 때 작은 선물을 함으로써 예절을 갖춘다는 뜻. '속수'는 열 조각의 마른 고기로, 예물 가운데 가장 약소한 것이다. 공자는 모든 가르침은 예(禮)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선물인 속수 이상의 예물을 가지고 오도록 함으로써 제자의 예를 지키도록 하였다. 여기에서 속수지례(束脩之禮)란 제자가 되기 위하여 스승을 처음 뵈올 때에 드리는 예물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23. "전통적 상복 중에 시마복이 있다"에서 밑줄 친 '시마복'을 漢字로 바르게 표기한 것은? (③)

①蒔麻服 ②著麻服 ③緦麻服 ④褶麻服

[설명] ◎緦麻服(시마복): 오복(五服)의 하나. 가는베로 지은 상복이다. 종증조, 삼종형제, 중현손(衆玄孫), 외손, 내외종 따위의 상사(喪事)에 석 달 동안 입는다.

24. '韜晦'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 (④)

①날이 어두움
②시절의 변화가 빠름
③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움
④숨기어 감춤

[설명] ◎韜晦(도회): 「1」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숨겨 감춤.「2」종적을 감춤.

25. '鳧藻'의 뜻풀이로 바른 것은? (④)

①뛰어난 학식이나 재능
②자나 깨나 책만 읽는 사람
③사이가 벌어져서 틀어짐
④몹시 기뻐서 떠듦

[설명] ◎鳧藻(부조): 물오리가 조류(藻類)를 보면 기뻐한다는 뜻으로, 몹시 기뻐서 떠듦을 이르는 말.

26. 成語의 의미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②)

①寸鐵殺人: 간단한 말로도 남을 감동하게 하거나 남의 약점을 찌를 수 있음.
②屨賤踊貴: 빼어난 인재가 없고 평범한 사람이 많음.
③拈華微笑: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
④馬革裹屍: 싸움터에 나가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르는 말.

[설명] ◎屨賤踊貴(구천용귀): '일반인의 신[屨]은 값이 싸고, 발꿈치를 자른 죄인이 신는 신[踊]은 비싸다'는 뜻으로 형벌이 지나치고 혹독해 죄를 범한 사람이 많음을 이름. 보통 신의 값은 싸고 죄를 지어 발을 잘린 사람이 신는 용(踊)의 값은 비싸다는 뜻으로, 죄인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7.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에서 밑줄 친 부분을 가장 바르게 풀이한 것은? (④)

①아홉 층의 탑도 마음을 다지는 데서 시작된다.
②아홉 층의 탑을 쌓으니 몸이 몹시 피곤하다.
③아홉 층의 누대에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난다.
④아홉 층의 누대도 터를 다지는 데서 시작된다.

[설명] ◎合抱之木 生於毫末 九層之臺 起於累土: 한 아름의 나무도 아주 작음으로부터 자라나고, 아홉 층의 누대도 터를 다지는 데서 시작된다.

28. "君子有三樂"에서 밑줄 친 '三樂'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④)

①父母具存 兄弟無故　②仰不傀於天 俯不怍於人
③得天下英才 而敎育之　④王天下

[설명] ◎군자에게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전부 살아계시고 형제가 아무탈 없는 것이고(父母具存 兄弟無故), 둘째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굽어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며(仰不傀於天 俯不怍於人), 셋째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다(得天下英才 而敎育之). 그러나 천하에 왕노릇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王天下 不與存焉).

29. "빼어난 재주를 지녔어도 ㉠庶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분 질서의 ㉡桎梏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에서 밑줄 친 어휘의 讀音으로 바른 것은? (③)

①㉠: 서자, ㉡: 실곡　②㉠: 서얼, ㉡: 실고
③㉠: 서얼, ㉡: 질곡　④㉠: 서자, ㉡: 질고

[설명] ◎庶孼(서얼): 서자와 그 자손. ◎桎梏(질곡): 「1」 옛 형구인 차꼬와 수갑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몹시 속박하여 자유를 가질 수 없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0. "浩浩㉠茫茫한 해상에 ㉡玲瓏한 월색을 바라보니 그 풍경이 아름답다"에서 밑줄 친 어휘의 讀音으로 바른 것은? (④)

①㉠: 망망, ㉡: 영룡　　②㉠: 만만, ㉡: 영롱
③㉠: 만만, ㉡: 영용　　④㉠: 망망, ㉡: 영롱

[설명] ◎茫(아득할 망), 玲(옥 소리 영), 瓏(옥 소리 롱). ◎浩浩茫茫(호호망망): 바다나 호수 따위가 끝없이 넓고 멀어서 아득하다. ◎玲瓏(영롱): 광채가 찬란하다. 구슬 따위의 울리는 소리가 맑고 아름답다.

31.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다”에서 밑줄 친 어휘를 漢字로 바르게 쓴 것은? (④)

①峽川　　②陜川　　③盒川　　④陜川

[설명] ◎陜川(합천): 경상남도 합천군에 있는 읍. 군청 소재지이다.

32. 다음은 記事의 제목을 제시한 것이다. 漢字 표기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①‘스마일 운동’으로 피부 綻力 維持 효과
②乾燥한 가을, 角質 관리 始作하세요!
③喘息, 肺癌과 연관 있어
④중국-일본 센카쿠 船舶衝突 비디오 유출 波紋

[설명] ◎綻(옷터질 탄)→彈(탄알 탄). ◎彈力(탄력):「1」용수철처럼 튀거나 팽팽하게 버티는 힘.「2」반응이 빠르고 힘이 넘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3」『물리』탄성체가 외부의 힘에 대항하여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힘.

33. “번거로운 예절,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절”이라는 뜻과 통하는 어휘는? (③)

①失禮　　②俗禮　　③縟禮　　④約禮

[설명] ◎失禮(실례): 말이나 행동이 예의에 벗어남.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 상대의 양해를 구하는 인사로 쓰는 경우가 많다. ◎俗禮(속례): 세속의 예절. ◎約禮(약례): 예법에 따라 조심성 있게 몸가짐을 바로 함. ◎縟禮(욕례): 복잡하고 까다로운 예의.

34. ‘落帙’의 反義語는? (④)

①逸帙　　②缺本　　③卷帙　　④完帙

[설명] ◎落帙(낙질): 한 질을 이루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빠진 권이 있음. 또는 그런 책. ↔ ◎完帙(완질): 한 질을 이루고 있는 책에서 권수가 완전하게 갖추어진 책.

35. 첫 글자가 길게 소리 나는 것은? (④)

①狂人　　②迷兒　　③巖石　　④飽滿

[설명] ◎長短音의 문제는 항상 어렵게 여겨지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

은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별의 방법은 平·上·去·入의 四聲에 의해 구별하는 것이다. 平聲과 入聲은 短音으로 읽고, 上聲과 去聲은 長音으로 읽는다. ◎狂(미칠 광), 迷(미혹할 미), 巖(바위 암)은 모두 平聲으로 短音이며, 飽(배부를 포)는 上聲으로 長音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맞는 答을 고르시오.(36~41)

㉠海上之人에 有好鷗鳥者라 每旦에 ㉡之海上하여 從鷗鳥遊한대 鷗鳥之至者 ㉢百數而不止라 其父曰 吾聞컨대 鷗鳥皆從㉣汝遊라하니 汝㉤取來하라 吾玩之하리라 하니라 明日에 之海上이나 鷗鳥舞而不下也라

[해석] 바닷가에 사는 사람 중에 갈매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매일 아침 바닷가로 나가 갈매기를 따라 노닐었는데 갈매기가 이르는 것이 백 마리를 헤아려도 멈추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이르길 "내가 듣건대 갈매기가 모두 너를 따라 노닌다하니 너는 그것을 잡아 오너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놀겠다." 하였다. 다음날 바닷가로 나갔으나 갈매기들이 춤추기만 하고 내려오지 않았다.

[해설] ◎제목: <鷗鳥(구조)>. ◎출전: 『列子(열자)』 - 중국 도가 경전의 하나. 전국 시대의 도가 열자(列子)와 그 제자가 썼다고 하나, 현전하는 8편은 진(晉)나라 장담(張湛)이 쓴 것임. ◎海上之人(해상지인): 바닷가에 사는 사람. 상(上)은 '부근, 근처'의 뜻. ◎有~者(유~자): ~하는 자가 있었다. ◎鷗鳥(구조): 갈매기. ◎每旦之海上(매단지해상): 매일 아침에 바닷가로 가다.

36. 윗글에서 밑줄 친 ㉠'海上之人'의 문맥상 의미로 바른 것은? (③)

①바다 위에서 사는 사람 ②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
③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④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사람

[설명] ◎海上之人(해상지인): 바닷가에서 사는 사람. ◎上(상): ~가, 주변.

37. 윗글에서 밑줄 친 ㉡'之'의 품사와 뜻으로 바른 것은? (②)

①대명사-저것 ②동사-가다 ③부사-또 ④조사--~의

[설명] ◎之(지): '가다'는 뜻의 동사로 쓰였다.

38. 윗글에서 밑줄 친 ㉢'百數而不止'의 풀이로 가장 바른 것은? (①)

①백을 헤아려도 멈추지 않았다.
②자주 재촉하고 멈추게 하지 않았다.
③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았다.
④매우 촘촘하고 성글지 않았다.

[설명] ◎百數而不止(백수이부지): 백을 헤아려도 멈추지 않았다.

39. 윗글에서 밑줄 친 ㉣'汝'와 바꾸어 쓸 수 없는 것은? (①)

①余 ②若 ③女 ④爾

[설명] ◎汝(여): 너. ◎若(약), 女(여), 爾(이)는 모두 '너, 당신'을 의미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余(여): 나. '1인칭 대명사'이다.

40. 윗글에서 밑줄 친 ㉤'取'의 생략된 목적어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②)

①好鷗鳥者 ②鷗鳥 ③每旦 ④其父

[설명] ◎鷗鳥皆從汝遊 汝取來(구조개종여유 여취래): "갈매기가 모두 너를 따라 노닌다하니 너[汝]는 (갈매기를) 잡아[取] 오너라[來]." '取'는 동사로 목적어를 가지는데, 여기서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鷗鳥'가 생략되었다.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④)

①옛사람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②윗글의 저자인 列子는 兼愛와 非攻을 주장하였다.
③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孝誠을 강조하고 있다.
④욕심을 잊고 자연과 일체가 됨에 관하여 말하였다.

[설명] ◎욕심이 없을 때는 갈매기들이 이르렀으나 욕심을 갖자 갈매기들이 내려오지 않았다.

■ 다음 詩를 읽고 물음에 맞는 答을 고르시오.(42~45)

秋淨㉠長湖碧玉流한대 荷花深處係蘭舟라
逢郎隔水投蓮子라가 ㉡恐被人知半日羞라

[해석] 맑은 가을 긴 호수에 벽옥 같은 물 흐르는데 / 연꽃 깊은 곳에 목란 배 매어 두었네 / 임을 만나려 물 건너로 연밥을 던지다가 / 남이 알게 될까 두려워 한나절 부끄러워하네

[해설] ◎제목: <採蓮曲(채련곡)>. ◎출전:『蘭雪軒集』-조선 선조 때의 시인 허난설헌의 문집. 남동생 허균이 모아 엮어 선조 39년(1606)에 간행하였다. 1책. ◎지은이: 허초희(許楚姬, 1563~1589). 호는 난설헌(蘭雪軒). 자는 경번(景樊). 당대 최고의 문장가였던 허엽(許曄)의 딸이며『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許筠)의 누이. ◎형식: 七言絶句(韻字: 1句-流, 2句-舟, 4句-羞). ◎감상: 연인을 그리워하는 젊은 여인들의 연정을 순수한 사랑의 정서로 표현. ◎係(계): '매다'라는 뜻. ◎蘭舟(난주): 목란주(木蘭舟)로 날씬하게 생긴 작은 배. 목란(木蘭)은 나무 이름. ◎隔水(격수): 물 건너로. '격(隔)'은 '사이가 뜨다'에서 '건너'의 뜻. ◎蓮子(연자): '연꽃의 밥'인데 '연자(憐子)'와 음이 같음. 따라서 '蓮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의 의미로 볼 수 있음. ◎被(피): '~당하다'라는 뜻으로 피동형 문장을 만듦. ◎半日(반일): 한나절. ◎羞(수): 바치다, 부끄럽다.

42. 위 詩의 作者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④)
①許筠 ②조선중기 ③蘭雪軒 ④松都三絶
[설명] ◎松都三絶(송도삼절): 송도의 세 가지 유명한 것. 서경덕, 황진이, 박연 폭포를 이른다.

43. 위 詩에서 밑줄 친 ㉠'長湖'와 짜임이 같지 않은 것은? (④)
①半日 ②荷花 ③深處 ④逢郎
[설명] ◎長湖(장호): 긴 호수. ◎半日(반일):「1」한나절.「2」하루의 반. ◎荷花(하화): 연꽃. ◎深處(심처): 깊숙한 곳. 이상은 모두 앞 글자가 뒤 글자를 꾸며주는 '수식관계'이다. ◎逢郎(봉랑): 임을 만나다. 낭군을 만나다. 이 경우는 '~을 ~하다'로 해석되는 '술목관계'이다.

44. 위 詩에서 밑줄 친 ㉡'恐被人知半日羞'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석되는 漢字는? (④)
①恐 ②被 ③知 ④羞
[설명] ◎恐被人知半日羞(공피인지반일수): 남이 알게 될까 두려워 한나절 부끄러워하네[羞].

45. 위 詩의 감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④)
①자연을 벗하며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노래함
②더러운 세상에도 꿋꿋이 기개를 지키는 자세를 표현
③연꽃의 맑고 향기로움을 자신의 고결한 삶에 빗댐
④젊은 여인의 연정을 순수한 사랑의 정서로 표현
[설명] ◎위 시는 연인을 그리워하는 젊은 여인들의 연정을 순수한 사랑의 정서로 표현하였다.

■ 다음 물음에 알맞은 答을 고르시오.(46~50)

46.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나 보람이 없음"을 뜻하는 俗談은? (①)
①如甑汲水 ②利刀劈水 ③懲湯吹冷水 ④宿虎衝鼻
[설명] ◎如甑汲水(여증급수): 시루에 물 붓기. 아무리 수고를 하고 공을 들여도 아무 소용이나 보람이 없음. ◎利刀劈水(이도벽수): 칼로 물 베기. 다투었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 곧 사이가 다시 좋아지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懲湯吹冷水(징탕취냉수): 끓는 물에 놀라 찬물도 분다. 한번 혼이 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부터 냄. ◎宿虎衝鼻(숙호충비): 자는 호랑이의 코를 찌른다는 뜻으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공연히 건드려서 화를 입거나 일을 불리하게 만듦을 이르는 말.

47. 단순다음절어 중 疊音單純語는? (④)
①剩餘 ②虞度 ③逍遙 ④關關

[설명] ◎關關(관관)은 '저구새의 울음소리'로 첩음 되어 쓰인다. ◎剩餘(잉여)는 쌍성단순어이다. ◎虞度(우탁)은 첩음, 쌍성, 첩운에 해당되지 않는 단순어이다. ◎逍遙(소요)는 첩운단순어이다.

48. 疊韻單純語가 아닌 것은? (②)

①搢紳 ②鞦韆 ③窈窕 ④螳螂

[설명] ◎搢紳(진신): 「1」'홀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으로,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2」지위가 높고 행동이 점잖은 사람. ◎窈窕(요조): 여자의 행동이 얌전하고 정숙하다. ◎螳螂(당랑): 사마귓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상은 모두 韻(운)이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疊韻單純語(첩운단순어)이다. ◎鞦韆(추천): 그네. 민속놀이의 하나. 또는 그 놀이 기구. 큰 나무의 가지나, 두 기둥 사이로 가로지른 막대에 두 가닥의 줄을 매어 늘이고, 줄의 맨 아래에 밑신개를 걸쳐 놓고 올라서서 몸을 움직여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논다. 이 경우는 聲이 같은 한자로 이루어진 雙聲單純語이다.

49. 古文의 文體 중 '奏議類'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①伯夷頌(劉伶) ②陳情表(李密)

③上秦皇諫逐客書(李斯) ④出師表(諸葛亮)

[설명] ◎劉伶(유령)의 伯夷頌(백이송)은 頌讚類(송찬류)에 해당된다.

50. 한문 교과에서 학습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아닌 것은? (③)

①협동 학습법 ②토론 학습법

③교사 중심 학습법 ④문제 중심 학습법

[설명] ◎교사와 학습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 물음에 맞는 答을 답안지(뒷면)의 해당 답란에 쓰시오.(51~150)

■ 다음 漢字의 訓音을 쓰시오.(51~73)

51. 豌 (완두 완) 52. 轟 (울릴 굉) 53. 炬 (횃불 거)

54. 柝 (열 탁) 55. 瘤 (혹 류) 56. 醍 (맑은술 제)

57. 銷 (녹일 소) 58. 矧 (하물며 신) 59. 朮 (차조 출)

60. 訖 (이를 흘) 61. 蠅 (파리 승) 62. 耒 (땅이름 말)

63. 匯 (물돌 회) 64. 蝸 (달팽이 와) 65. 听 (웃을 은)

66. 雹 (우박 박) 67. 闌 (가로막을 란) 68. 涎 (침, 물흐를 연)

69. 釵 (비녀 채) 70. 鑿 (뚫을 착) 71. 僊 (춤출, 신선 선)

72. 葫 (마늘 호) 73. 罟 (그물 고)

■ 다음 訓音에 맞는 漢字를 쓰시오.(74~83)

74. 조릿대 족 (簇) 75. 개 오 (獒) 76. 이지러질 건 (騫)

77. 굽을 구 (勾) 78. 갖옷 구 (裘) 79. 막을 알 (遏)

80. 육효 효 (爻) 81. 숨을 찬 (竄) 82. 누룩 국 (麴)

83. 게 해 (蟹)

■ 다음 물음에 알맞은 答을 쓰시오.(84~94)

84. 異音同字인 '夬'의 音이 다른 訓音을 쓰시오.(㉠: 나눌 쾌, ㉡: 깍지 결)

[설명] ◎夬(쾌·결): 터놓다, 정하다, 결정하다, 나누다, 가르다, 쾌괘(夬卦: 육십사괘의 하나)(쾌) / 깍지(활을 쏠 때 엄지손가락에 끼우는 기구)(결).

85. ㉠'酢酸'와(과) ㉡'酬酢'에서 밑줄 친 각각의 어휘의 뜻에 맞는 '酢'의 訓音을 각각 쓰시오. (㉠: 식초 초 , ㉡: 잔돌릴 작)

[설명] ◎酢(초·작): 신맛 나는 조미료, 초, 신맛, (맛이)시다 (초) / 잔을 돌리다, 응대하다, 즐기다, 좋아하다, 보답하는 제사 (작). ◎酢酸(초산): 아세트산. 지방산(脂肪酸)의 한 가지. 자극적이고 강한 냄새와 신맛을 내는 무색 액체. 13~16℃에서 결정(結晶)을 이루어 빙초산이 됨. 식초나 용제·염색·아스피린·아세톤 따위의 원료로 쓰임. ◎酬酢(수작): 「1」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2」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3」 남의 말이나 행동, 계획을 낮잡아 이르는 말.

86. '醱'와(과) 어휘를 이룰 수 있는 類義字를 漢字로 쓰시오. (酵)

[설명] ◎醱(술괼 발) = 酵(술괼 효). ◎醱酵(발효): 효모·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 화합물이 분해·산화·환원하여 주정류·유기산류·탄산가스 등을 생기게 하는 작용. 술·간장·초·된장 등의 제조에 이용함.

87. '擒'와(과) 어휘를 이룰 수 있는 反義字를 漢字로 쓰시오. (縱)

[설명] ◎擒(사로잡을 금) ↔ 縱(놓아줄 종). ◎擒縱(금종): 포로로 사로잡음과 용서하여 놓아줌.

88. '鱉'의 同音同義字를 쓰시오. (鼈)
[설명] ◎鱉(자라 별), 鼈(자라 별).

89. '蛂'의 本字를 漢字로 쓰시오. (蠣)
[설명] ◎蠣(굴 려).

90. '桜'의 本字를 漢字로 쓰시오. (櫻)
[설명] ◎櫻(앵두나무 앵).

91. '霽'의 總劃을 쓰시오. (22획)
[설명] ◎霽(갤 제): 雨(비우, 8획)부수의 14획, 총22획.

92. '憊'의 部首를 漢字로 쓰시오. (心)
[설명] ◎憊(고달플 비): 心(마음 심, 4획)부수의 12획, 총16획.

93. "□逆, □位, □奪"에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
(簒)
[설명] ◎簒逆(찬역):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함. ◎簒位(찬위): 임금의 자리를 빼앗음. ◎簒奪(찬탈): 왕위, 국가 주권 따위를 억지로 빼앗음.

94. "不信乎朋友 不獲乎上矣"에서 밑줄 친 '獲'의 알맞은 訓音을 쓰시오.
(얻을 획)
[설명] ◎不信乎朋友 不獲乎上矣(불신호붕우 불획호상의): 벗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면 윗사람에게도 신임을 얻지 못한다.

■ 다음 낱말의 뜻에 맞는 어휘를 漢字로 쓰시오.(95~99)

95. 창피: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함. (猖披)
[설명] ◎猖披(창피).

96. 수영: 잘 여문 벼나 수수 따위의 이삭. 재능이 뛰어남. (秀穎)
[설명] ◎秀穎(수영).

97. 세척: 깨끗이 씻음. (洗滌)
[설명] ◎洗滌(세척).

98. 간특: 간사하고 악독함. (姦慝/奸慝)

[설명] ◎姦慝/奸慝(간특).

99. 낭패: 계획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비유함. (狼狽)
[설명] ◎狼狽(낭패).

■ 다음 밑줄 친 낱말을 漢字로 쓰시오.(100~103)

'쑥잎을 고아서 만든 고약'을 100)<u>애고</u>라고 하고, '쑥을 넣어 만든 떡'도 101)<u>애고</u>라고 하며, '애처로운 고백'을 102)<u>애고</u>라고 하며, '사랑하여 돌보아 줌'도 103)<u>애고</u>라고 한다.

100. (艾膏) 101. (艾糕(餻)) 102. (哀告) 103. (愛顧)

■ 다음 어휘의 讀音을 쓰시오.(104~117)

104. 撲滅 (박멸) 105. 奈落 (나락) 106. 豕喙 (시훼)

107. 索漠 (삭막) 108. 盥漱 (관수) 109. 砦堡 (채보)

110. 麤米 (추미) 111. 咳嗽 (해수) 112. 登攀 (등반)

113. 悄愴 (초창) 114. 彌勒 (미륵) 115. 馴服 (순복)

116. 嗅葉 (후엽) 117. 侏儒 (주유)

■ 2音節 어휘의 뜻을 쓰시오.(118~119)

118. 且置: (내버려 두고 문제 삼지 아니함.)
[설명] ◎且置(차치).

119. 渣滓: (가라앉은 찌꺼기. 가라앉은 찌끼. 찌꺼기.)
[설명] ◎渣滓(사재).

■ 3音節 어휘의 <u>속뜻</u>을 쓰시오.(120~121)

120. 獅子吼: (부처의 위엄 있는 설법 /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 / 질투심이 강한 아내가 남편에게 암팡스럽게 떠드는 일.)

[설명] ◎獅子吼(사자후):「1」『불교』부처의 위엄 있는 설법을, 사자의 울부짖음에 모든 짐승이 두려워하여 굴복하는 것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2」사자의 우렁찬 울부짖음이란 뜻으로,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연설을 이르는 말.「3」질투심이 강한 아내가 남편에게 암팡스럽게 떠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21. 鐵甕城: (어떤 강한 힘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게 방비나 단결이 강한 상태를 이르는 말.)

[설명] ◎鐵甕城(철옹성): 쇠로 만든 독처럼 튼튼하게 둘러쌓은 산성이라는 뜻으로, 방비나 단결 따위가 견고한 사물이나 상태를 이르는 말.

■ 4音節 成語의 속뜻을 쓰시오.(122~124)

122. 宋襄之仁: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을 이름.)

[설명] ◎宋襄之仁(송양지인): 송나라 양공의 어짊. [속뜻] 쓸데없이 베푸는 인정을 이름.

123. 髀肉之歎: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

[설명] ◎髀肉之歎(비육지탄): 장수가 오랫동안 전장에 나아가지 않아 말을 탈 기회가 없어 넓적다리에 살이 올라 있는 것을 보고 탄식함. 자신의 재주와 역량을 펴 보일 기회가 없음을 한탄함.

124. 囊中之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

[설명] ◎囊中之錐(낭중지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사람들에게 알려짐을 이르는 말.

■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시오.(125~126)

125. 勸賣買요 鬪則解니라 (흥정은 부치고, 싸움은 말린다.)

[설명] ◎勸賣買 鬪則解(권매매 투즉해): 흥정은 부치고, 싸움은 말린다.

126. 見善如渴하고 聞惡如聾하라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먹은 것 같이 하라.)

[설명] ◎見善如渴 聞惡如聾(견선여갈 문악여농): 착한 일을 보거든 목마른 것 같이 하고, 악한 일을 듣거든 귀먹은 것 같이 하라.

■ 밑줄 친 구절의 뜻을 가진 어휘를 漢字는 讀音으로, 讀音은 漢字로 고쳐 쓰

시오.(127~132)

바야흐로 그가 형주를 깨뜨리고 강릉을 함락하고, 127)물결을 따라 동쪽으로 갈 때에, 배꼬리와 뱃머리가 천리에 이어졌고, 128)깃발은 하늘을 가렸다. 강가에 임해 술을 마시며, 창을 비껴들고 시를 지었으니, 참으로 당대의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하물며 나와 그대는, 129)강가에서 130)고기 잡고 나무하며, 131)물고기와 새우를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으로 벗을 삼았다. 일엽편주를 타고, 132)바가지 술잔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천지간에 붙이고 있으니, 아득한 바다 가운데 좁쌀 하나와 같다. < 前赤壁賦 >

127. 순류: (順流) 128. 旌旗: (정기) 129. 강저: (江渚)

130. 漁樵: (어초) 131. 어하: (魚鰕(蝦)) 132. 匏樽: (포준)

■ 각각의 밑줄 친 부분(133~140)에서 잘못 표기된 漢字를 찾아 바르게 校訂하여 쓰고, 밑줄 친 ㉠(141)은 漢字로 바꿔 쓰시오.

먼저 「광인일기」의 경우, 대립의 133)極覘에서 광인은 현실적으로 식인성에 굴복했지만 적어도 신화적으로는 134)和該하였다. 광인의 식인 본성에 대한 깨달음, 그것은 현실적으로 비극이지만 앞서 살핀 바 신화적 동물이 원초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양성구유적 본성의 확인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135)坐折에도 불구하고 이 신화적인 和該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루쉰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 지점에서 그는 우리의 136)詣斷을 벗어난다.

『황제를 위하여』에서 광인이자 진인인 황제는 「광인일기」와는 반대 방향에서 식인적인 현실 곧 근대에 대해 저항하지만 그것은 결국 시대착오로 판명난다. 비록 137)嬉畫化되어 있긴 하나 138)宛固한 시대성에 대한 도전과 실패라는 점에서 『황제를 위하여』는 「광인일기」와 더불어 그 의미를 일정 부분 공유한다. 그러나 실패한 황제의 행로는 「광인일기」의 광인과 같지 않다. 황제는 광인처럼 현실로 굴절하지 않고 초월적 자아인 진인의 경지에 귀숙함으로써 내면의 왕국을 연다. 그는 139)眸險 끝에 회귀하는 영웅이 아니라 회귀를 거부하고 140)避岸의 세계로 홀연히 가버린 신선 같은 존재인 것이다.

<정재서 지음, 『사라진 신들과의 교신을 위하여』(서울: 문학동네)>

133. (覘→點) 134. (該→諧) 135. (坐→挫) 136. (詣→豫)

137. (嬉→戱) 138. (宛→頑) 139. (眸→冒) 140. (避→彼)

[설명] ◎極點(극점): 「1」 극도에 이른 점. 「2」 『지구』 위도 90도의 지점. 남극점과 북극점이 있다. ◎和諧(화해): 싸움하던 것을 멈추고 서로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을 풀어 없앰. ◎挫折(좌절): 「1」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 「2」 어떠한 계획이나 일 따위가 도중에 실패로 돌아감. ◎豫斷(예단): 미리 판단함. 또는 그 판단. ◎戱畫化(희화화):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이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거나 풍자됨. 또는 그렇게 만듦. ◎頑固(완고):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셈. ◎冒險(모험):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 또는 그 일. ◎彼岸(피안): 「1」 『불교』 사바세계 저쪽에 있는 깨달음의 세계. 「2」 『불교』 이승의 번뇌를 해탈하여 열반의 세계에 이름. 또는 그런 경지. 「3」 『철학』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관념적으로 생각해 낸 현실 밖의 세계.

141. 윗글에서 밑줄 친 ㉠‘양성구유’를 漢字로 바꿔 쓰시오. (兩性具有)
[설명] ◎兩性具有(양성구유):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를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알맞은 答을 쓰시오.(142~146)

李澄이 幼登樓而習畫하니 家失其所在라가 三日乃得이라 父怒而笞之어늘 泣引淚而成鳥하니 此可謂忘㉠영욕於畫者也라 鶴山守는 通國之善歌者也라 入山하여 ㉡習每一曲에 拾沙投履하여 滿履乃歸라 嘗隅盜하여 將殺之어늘 依風而歌에 群盜莫不㉢□□泣下者하니 此所謂㉣死生不入於心이라

[해석] 이징이 어렸을 때 다락에 올라 그림을 익히니 가족들이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다가 사흘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노하여 그를 회초리로 때리거늘 울면서 눈물을 끌어다가 새를 그렸다. 이쯤 되면 ‘그림에 온통 빠져서 영욕(榮辱)을 잊어버렸다’고 이를 만하다. 왕실 종친부의 학산(鶴山) 수(守)는 나라 안을 통틀어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다. 산에 들어가서 매번 한 곡을 익힘에 모래를 주워 신발에 던지고는 신발이 가득 차서야 마침내 돌아왔다. 일찍이 도둑을 만나 장차 그를 죽이려하거늘 바람을 타고 노래함에 여러 도둑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쯤 되면 ‘죽고 사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해설] ◎수록교과서 및 출전: 천재/ 『燕巖集』. ◎연암집(燕巖集):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며 소설가인 박지원(朴趾源)의 시문집. 이 글은 <炯言桃筆帖序(형언도필첩서)>의 내용이다. ◎李澄(이징 1581(선조 14)~?):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함(子涵), 호는 허주(虛舟). 왕족 화가 선조 14년(1581) 유명한 화가였던 종실(宗室) 학림정(鶴林正) 이경윤(李慶胤)의 서자이다. 화원으로 주부와 사과를 지냈다. ◎鶴山守(학산수, ?~?): 조선(朝鮮) 중기의 왕실의 친척이자 명창. 이름은 미상(未詳)이다. 학산(鶴山)은 그의 봉호이고, 수(守)는 종친부(宗親府)의 정4품 벼슬이다.

142. 윗글에서 밑줄 친 ㉠‘영욕’을 알맞은 漢字로 쓰시오. (榮辱)
[설명] ◎榮辱(영욕): 영예와 치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3. 윗글에서 밑줄 친 ㉡의 내용에 해당하는 四字成語를 漢字로 쓰시오.
(自彊(强)不息 / 刻苦勉勵 …)
[설명] ◎自彊不息/自强不息(자강불식):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쉬지 아니함. ◎刻苦勉勵(각고면려): 어떤 일에 고생을 무릅쓰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무척 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함.

144. 위 글 ㉢의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 (感激)

[설명] ◎依風而歌 群盜莫不感激泣下者(의풍이가 군도막불감격읍하자): 바람을 타고 노래함에 여러 도둑들이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145. 윗글에서 밑줄 친 ㉣'死生不入於心'을 풀이하시오.
(죽고 사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

[설명] ◎此所謂死生不入於心(차소위사생불입어심): 이쯤 되면 '죽고 사는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146. 윗글에서 잘못된 漢字를 찾고, 바르게 고쳐 쓰시오. (隅 → 遇)

[설명] ◎隅 → 遇. ◎嘗遇盜(상우도): 일찍이 도둑을 만나.

■ 다음 詩를 읽고 물음에 알맞은 答을 쓰시오.(147~150)

有約來何晩고 庭梅欲㉠謝時에
忽聞枝上鵲하니 ㉡虛畵鏡中眉라

[해석] 온다고 약속하더니 어찌하여 늦을꼬? / 뜰에 핀 매화도 지려고 하는 때에 / 홀연히 가지 위에 까치 소리 들리니 / 부질없이 거울 속 눈썹을 그려보네.

[해설] ◎제목: <閨情(규정)>. ◎지은이: 이옥봉(李玉峯). 조선 시대의 여류시인. 이름은 숙원(淑媛). 옥천 군수를 지낸 이봉(李逢)의 서녀. 남명(南冥) 조식(曹植)의 문인인 조원(趙瑗)의 소실로 지내다가 임진왜란 때 순절하였다고 함. ◎출전:『大東詩選』. ◎형식: 五言絶句(韻字: 2句-時, 4句-眉). ◎감상: 임과의 해후(邂逅)만을 기다리며 새봄을 맞이한 여인이 조바심을 지우지 못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나타내고 있음. ◎謝(사): 하직하다. 여기서는 '시들다', '떨어지다'의 뜻. ◎鵲(작): 까치.

147. 위 詩의 형식을 漢字로 쓰시오. (五言絶句)

[설명] ◎五言絶句(오언절구): 한 구가 다섯 글자로 된 절구. 중국 당나라 때에 성행하였다.

148. 위 詩에서 밑줄 친 ㉠'謝'의 뜻을 문맥에 맞게 쓰시오. (시들다 / 지다)

[설명] ◎謝(사): 시들다.

149. 위 詩에서 밑줄 친 ㉡'虛'의 품사를 漢字로 쓰시오. (副詞)

[설명] ◎虛畵鏡中眉(허화경중미): 부질없이 거울 속 눈썹을 그려보네. ㉡'虛'의 품사는 '부사'이다.

150. 위 詩에 드러난 주된 정감은 무엇인지 10글자 내외로 쓰시오.
(임에 대한 그리움)

[설명] ◎임과의 해후(邂逅)만을 기다리며 새봄을 맞이한 여인이 조바심을 지우지 못하고 임에

대한 그리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